

문화광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제주도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 오는 국제관광도시다. 찾아오는 외국인 중에는 예술가도 있다. 관광 외에도 전시, 공연, 레지던시 등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도에 오기도 하고, 작품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도 온다. 문화공간 양에도 외국 작가가 종종 방문한다. 특히 작년 가을부터는 4:3을 주제로, 외국인 큐레이터와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화공간 양에 영어 웹사이트가 없다는 점이 갑자기 문제가 되었다. 외국인 큐레이터와 작가는 문화공간 양 웹사이트에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사진만 보았다.

문화·예술 공간 외국어 웹사이트의 필요성

외국인 큐레이터와 작가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 제주도 내 미술관, 박물관 등의 영어 웹사이트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문화공간 양만 영어 웹사이트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예술공간 이아, 제주돌문화공원 웹사이트는 자동번역기를 사용했다. 자동번역기에서는 이미지를 한 글자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오류가 많아 외국인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글은 전문용어도 많아 오류의 정도가 심하다. 때로는 아주 심각한 오류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예술공간 이아의 공식 영어 표현은 Artspace IA인데 자동번역기는 Art Space Iasi로 번역하고 있다.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전시가 Exhibitions이 아닌 Display로 번역되어 있기도 했다.

제주현대미술관, 산지천 갤러리는 자동번역기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제주아트센터는 언어선택에서 영어를 아무리 눌러도 다시 한국어 사이트가 됐다. 국립제주박물관은 그나마 번역이 잘 되어있는 듯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특별전시의 경우 2015년 전시를 마지막으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았고, 게시판에는 테스트용 글 하나만 올라가 있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개요 설명만 있었고, 소장자료 검색은 아예 항목이 없었다. 2014년 영어 웹페이지를 오픈한 뒤로 한 번도 관리를 안 한 듯했다. 제주아트센터, 기암미술관, 이종섭미술관 등 서귀포시 산하의 문화·예술 공간의 웹사이트는 서귀포문화예술포털 사이트로 통합되었는데, 영어로 번역된 웹사이트는 찾을 수 없었다. 혹시나 하

는 마음에 제주도 전역의 문화·예술 행사가 홍보되는 포털사이트인 제주인물다에 들어가 보았다. 역시 자동번역기를 사용하고 있어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방대한 양의 내용을 이해 가능한 수준의 영어로 번역하려면 많은 예산이 든다. 또한 문화·예술 공간의 경우 자주 새로운 정보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힘이 든다. 특히 어떤 종류의 보조금도 웹사이트 번역에는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개인과 민간단체의 경우 웹사이트 번역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외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하기 전 제주도 문화·예술을 처음 접하는 곳이 웹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보다 먼저 외국어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에 개인과 민간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는 예산을 쥐어준다.

사설

미분양관리지역 확산, 대책도 없어 문제다

제주지역 주택시장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서귀포시도 사상 처음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미분양주택은 1218호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48호, 서귀포시 570호입니다. 미분양주택이 늘면서 제주지역은 2017년 4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처음 공고된 후 6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상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지역(시·군·구)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문제는 제주시만이 아니

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오는 8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 전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돼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주택시장이 하반기에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큰 일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을 하반기 도내 입주물량은 225세대로 상반기(1239세대)에 비해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소비심리지수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강곡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냉랭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미분양 해소대책을 위해 TF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지혜가 절실합니다.

하반기 정기인사 공정·객관성 확보해야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타당한 말이지만 여타껏 제주도와 행정시 인사는 그런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단체장들이 줄곧 눈공행상 인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누님만 공모’를 통해 선거 측근들을 개방형 자리로 기용하거나 공무원들도 선거기여도에 따라 승진혜택을 받았습니. 물론 능력있는 외부인물을 개방형 직위에 등용하는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들까지 문지마시 기용해 비난을 샀습니다. 다음달 2일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일부 발탁·코드 인사가 예상됩니다. 일을 잘 하는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지만 업무 능력과 무관한 코드·보은 인사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 뻔합니다. 지난해 1월 제주시 정기인사에서는 서기관 승진 최저 소요연수 4년을 다 채우지 못한 한 사무관을 국장(서기관)직무대리로 승진시키는 일이 벌어져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인사로 인한 피해는 공직자들이 받겠지만 더 큰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 됩니다. 이번 인사에서 단체장들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도민들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시 바랍니다. 인사의 투명·공정·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자신과 세력들의 사익을 우선 해선 안되겠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후에는 ‘인사가 만사였다’는 비난을 받지 않길 기대합니다.

열린마당

표선 119센터에서의 현장실습을 마치며



최다은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응급구조과 3년의 과정 중 단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을 이번 하계방학에 나가게 됐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하늘과 센터에 점점 적을 할 때쯤 상황실에서 주소를 다급하게 묻는 목소리와 함께 출동벨이 울리던 순간이 현장실습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가루농약을 먹고 쓰러져 있던 환자를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하니 온몸에 비를 맞은 상태로 심하게 떨고 있었고, 계속해서 구토를 하며 심하게 괴로워 했다. 환자의 오한 증세 완화를 위한 처치와 산소 투여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응급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해야

할 행동, 약물중독에서의 주의사항들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중간에 인사 이동으로 많이 못 가르쳐주고 간다며 가시는 날까지 너무나 아쉬워 했던 반장님, 중간에 센터로 오게 되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았다며 병원에서 만나자던 반장님, 심전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에게 학생시절 공부하셨던 책까지 보여 주시며 가르쳐 주신 열정 많은 반장님, 실습생들에게 정말 아끼없는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센터장님 등 소방관의 자부심과 긍지를 알려주신 표선 119센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며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됐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언젠가는 현장에서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을 위해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많은 가르침을 주신 표선 119센터의 모든 소방관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카페음료 60잔 주문 후 막판 취소 ‘빈축’

차고지증명제 민원해소 전력 ○...서귀포시가 이달부터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차고지 승인처리 건수가 270건이며 부적합 처리도 5건으로 파악. 부적합의 경우 주차장 공간의 바닥을 포장하지 않거나 주차선을 그리지 않은 경우 등으로, 차량 소유자의 집 마당에 차량을 세워도 차고지를 증명하려면 바닥 포장과 주차선을 그려야 하는 불만이 따르는 상황.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자 회의를 통해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교육공무원 자존감 당부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이 학교 행정실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라고 당부. 고 국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는 일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학교

내 행정실에서 막중한 일을 하는 데도 허드렛일, 보잘 것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셔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 이어 스튜어디스와 비교하며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훨씬 고차원적인 일을 하고 있으므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표성준기자

모대학, 일방취소 늦은 사과 ○...육지부 A대학이 제주도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토대장정 행사를 진행하며 현지 카페에 음료 60잔을 시켜놓고 도착 예정 시간 20분 전에 취소를 통보해 빈축. A대학은 지난 19일 오후 3시쯤 김녕해수욕장 인근 한 카페에 차 60잔을 주문했다가 5시 10분쯤 급히 취소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다음날 학생처장 명의로 SNS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리게 됐다”는 사과글을 게재. 카페 측은 “데이크 아웃 잔에 음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급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고대모기자

부 고
김명만(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연합회장, 前 도의원) 아버지 김해김공 일광(향년 82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22일 06시 0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7월 25일(목)
▶ 발인일시: 2019년 7월 26일(금)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3일(10분향실) 24일(2분향실)
▶ 장 차: 시공설묘지
부 인 김춘자
아 들 김명만 며느리 이성애 명호 흥복례 딸 고봉훈
손 자 김대건 손 녀 김해미 민건 승미 봉건 현정 형민
※ 연락처 : 김명만 010-3691-4224

부 고
한창실 아버지 청주항공 응주(교육자·향년 84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22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7월 23일(화)
▶ 발인일시: 2019년 7월 24일(수) 오전 7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분향실
▶ 장 차: 성산을 수산 가족묘지
부 인 김경자
아 들 한창실 며느리 임소영 창길
딸 한은하 사 위 서동석
※ 연락처 : 한창길 010-9911-8706 한은하 010-2704-7934 한창실 010-8547-2888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증-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루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회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월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제주은행 2F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